

# CHAIRPERSON NOTE

## 경제 이슈

- 1월 경상수지 흑자 1억 달러에 불과
- KT&G, 적대적 M&A 사태에 몰려

## 경영 노트

- GE의 성공 비결

## 사회 트렌드

-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
- 기부 비즈니스(business of giving)

## 저널 브리프

- 중국 발전의 최대 원동력, 공산당

## 洗心錄

- 나이 들어 대접받는 7가지 비결

□ 1월 경상수지 흑자 1억 달러에 불과

- 1월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폭이 감소하고,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확대됨에 따라, 작년 12월의 4.1억 달러보다 2.7억 달러 줄어든 1.4억 달러에 그침
  - 상품수지는 조업 일수 감소에 의한 수출 증가세 둔화와, 원유 수입이 전년동월 대비 약 72% 급증하는 등 원자재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12월의 18억 달러보다 3억 달러 가량 줄어든 15억 달러에 그침
  - 특히 서비스수지의 경우 여행수지 악화 등으로 12월의 약 11억 달러 적자에서 16억 달러 적자로 크게 악화됨
  
- 환율 하락, 유가 급등, 내수 회복 등으로 수출 부진과 수입 증가 현상이 지속되어 상품수지 흑자의 축소가 우려되며, 주 5일제의 확산, 원화의 구매력 증대 등으로 해외여행이 급증함에 따라 서비스수지마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여, 올해 경상수지 흑자폭은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 KT&G, 적대적 M&A 사태에 몰려

- 세계적인 기업 사냥꾼으로 알려진 칼 아이칸이 최근 KT&G에 이메일을 보내 현 주가보다 17%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공개매수 하겠다고 통보함
  - 본래 공개매수는 기업의 경영권 획득을 목적으로 시장에서 주식을 사들이는 행위로서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의 견제 장치임
  - 그러나 KT&G의 경우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등으로부터 2년 연속 최우수 지배구조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는 우량 기업인 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경영권 공격 사태가 벌어진다는 데에 문제가 있음
  
- KT&G의 민영화 과정에서 국내 자본이 지배 주주가 되는 것을 막았던 것이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며, 따라서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융·산업 분리 원칙 등과 같은 국내 자본에 대한 역차별 장치가 해소돼야 근본적인 재발 방지가 가능함

□ GE의 성공 비결

- 포천지에 의해 6년 연속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선정된 GE의 비결을 CNN머니는 ‘경영 선도’와 ‘인재 육성 및 합리적 노사문화’로 분석
  - 1892년 설립된 GE는 1896년 다우존스 지수 대상에 포함된 최초의 12개 기업 가운데 지금까지 유일하게 살아남은 기업임
  - 파이낸셜 타임스의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서도 지난 8번 중에 7번 선정

■ 첫째, ‘경영 아젠다’를 선정하고, 과감한 혁신을 주도

- GE는 1890년대 기업 성장 단계에 따라 조직을 운영하는 방법을 설명했던 ‘구조 디자인’을 시작으로 ’90년대 ‘식스 시그마’까지 지난 100여 년간 경영 혁신을 선도함
- 스스로 창안한 개념도 효용이 다하면 과감히 정리하는 등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점이 GE의 경영 문화이며, 장점으로 작용함

<GE의 경영 아젠다>	
시기	경영 아젠다
1890년대	구조 디자인
1900년대	R&D 개념 창시
1930년대	협력적 노사관계
1950년대	‘블루 북’ 편찬 (GE의 경영 노하우)
1960년대	전략 경영
1990년대	식스 시그마

■ 둘째,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과 유연한 노사문화 정착

-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변화가속화운동(Change Acceleration Process)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등 직원 총 급여의 3%를 교육과 훈련에 투자함
- 엄격한 실적 평가를 통해 매년 하위 10%를 교체할 수 있는 유연한 노사문화가 정착되어 있음

■ (제언)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 활동이 필요

- 하버드대 가빈 교수에 따르면, 기업의 명성과 영속성의 비결은 활발한 혁신과 조직 적응력에 있음
- GE의 현 CEO인 이멜트가 생산성 증진을 위한 이니셔티브인 식스 시그마 운동을 기존의 비용 절감에서 프로세스 시간 단축으로 확장하는 등 GE는 지속적인 혁신 운동이 체질화되어 있음

## □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

- 매니페스토 운동이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 공약을 제시할 때 목표, 우선 순위, 기간, 공정, 예산 등의 사항을 수치로 명기해 검증과 평가를 쉽게 받도록 하자는 운동임
  - 우리나라에선 최근 열린우리당이 이 운동 참여를 공식 선언했고, 한나라당도 모든 후보에게 매니페스토 기준에 맞춰 공약을 제시하라고 권고하는 등 본격 참여키로 했음. 다른 정당이나 중앙선관위도 적극적임
  - 영국에선 1997년 총선때 노동당의 블레어 후보가, 일본에선 2003년 지방선거 때 현지사에 출마했던 마쓰자와 후보가 시작해 확산되고 있음
- 아직도 선거에서 지역주의와 중앙당 중심주의의 폐해가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각 정당이 정책 중심 선거에 적극 나서겠다고 선언한 것을 의미함
  - 정부도 후보자들이 실효성 있는 매니페스토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정보를 좀더 개방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함

## □ 기부 비즈니스(The business of giving)

- 자선 활동에 기업 경영적인 요소가 도입되는 등 새 기부 문화가 확산
  - 요즘 부자들의 기부 방식은 한마디로 ‘좀더 비즈니스적’(business-like)임
  - 신흥부자들은 기부한 돈을 그저 막연히 ‘좋은 데’ 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용도를 지정해서 쓰이도록 하는 경우가 많음
  - 가령, 美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는 기부금을 자신의 평소 지론인 난민 보호에 쓰도록 하고 있고, 빌게이츠 재단의 돈은 가난과 질병 구호에 한정해서 쓰고 있음
- 기부금을 마구잡이 식으로 뿌리는 게 아니라 일종의 사회 투자(social investing)의 개념으로 파악함
  - 따라서 일반적인 투자와 마찬가지로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철저한 사전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짐
  - 전략적(strategic), 시장지향적(market-oriented), 지식 기반(knowledge-based) 등 기업 경영에서 쓰이는 용어가 자선사업에서도 일상용어처럼 쓰이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자선자본주의’(philanthro-capitalism)라는 용어도 등장

□ 중국 발전의 최대 원동력, 공산당\*

- (중국을 읽는 키워드, 공산당) 지난 28년여 동안의 개혁 개방을 통해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최대 발전 원동력은 바로 공산당임
  - (공산당이 없으면 신중국은 없다) 중국인들은 공산혁명뿐 아니라 현재도 중국 발전의 최대 기여자는 공산당이라 여기고 있으며, ‘공산당이 없으면 신중국은 없다’란 말처럼 공산당은 중국을 읽는 핵심 키워드임
    - 중국 공산당 당원은 현재 약 6,900만 명에 달하나 공산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생의 경우 의식의 순결성, 인민을 위한 봉사심, 지적 능력 등의 검증, 각종 사회활동 참여 여부와 사상 검증 등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함
    - 공산당은 국가 말단 행정기관이나 기업에까지 뻗어 있는데, 각 지방 정부의 경우 공산당(당서기)이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각 지방 정부는 그 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게 됨
- (중국 공산당의 경쟁력 강화 요인) 공산당이 절대 권력인 만큼 각종 부정 부패에 늘 노출되어 있어 이러한 위험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자기 정화에 힘쓰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 또한 강화하고 있음
  - (자기정화) 공산당의 자기정화의 대표적인 표현은 ‘연경화(年輕化)’인데, 이는 고학력 젊은 기술 관리들의 당정 수뇌부 진입이 증가하는 것을 말함
    - 전체 공무원 중 대졸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32%에서 현재는 70%를 능가하는데, 이는 1995년 이후 매년 5,000명 이상의 대학 졸업생을 공직 분야로 유입시켰기 때문임
    - 대표적인 연경화로는 2003년 단행된 간부급 당정 인사로 당시 35세였던 루하오(陸昊)의 베이징 시장 선임을 들 수 있으며, 허난(河南)성의 리커창(李克強, 51세) 당서기나 저장(浙江)의 시진핑(習近平, 53세) 당서기는 박사 학위 소유자임
  - (교육) 중국 공산당 경쟁력의 또 다른 원인은 각급 행정기관에 포진한 당교(黨校)나 해외연수를 통한 끊임없는 교육에 있음. 이를 통해 엘리트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다짐으로써 관계는 물론 학계, 업계, 외국기업 등에서도 공산당원 채용을 선호하는 형편임

\* 이 글은 『한경 비즈니스』(2005.02.26)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임.

## □ 나이 들어 대접받는 7가지 비결

편안하게 잘 죽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품위 있고 고상하게 늙어 가는 일이라고 한다. 세상 모든 이치가 그렇듯, ‘존경받는 노후’를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투자와 훈련이 필요하다. 오명철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은 노년의 삶을 업그레이드 하는 청량음료 같은 지혜라는 의미에서 ‘세븐업’(7-UP, 미국의 사이다)으로 명명하여 설명하고 있다.

■ **Clean Up** : 나이 들수록 집과 환경을 모두 깨끗이 한다. 귀중품이나 패물은 유산으로 남기기보다는 살아생전에 선물로 주는 것이 효과적이고 받는 이의 고마움도 배가된다.

■ **Dress Up** : 항상 용모를 단정히 해 구질구질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한다. 젊은 시절에는 아무 옷이나 입어도 괜찮지만 나이가 들면 비싼 옷을 입어도 좀처럼 태가 나지 않는 법이다.

■ **Shut Up** :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많이 한다. 노인의 장광설과 훈수는 주위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말 대신 박수를 많이 쳐 주는 것이 좋다.

■ **Show Up** : 회의나 모임에 부지런히 참석하라. 집에만 칩거하며 대외 활동을 기피하면 정신과 육체가 모두 병든다.

■ **Cheer Up** : 언제나 밝고 유쾌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지혜롭고 활달한 노인은 주변을 활기차게 만든다. 젊으면서도 곰삭은 지혜의 말에다 독창적인 유머 한 가지를 곁들일 수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

■ **Pay Up** : 돈이든 일이든 자기 몫을 다해야 한다. 지갑은 열수록, 입은 닫을수록 대접을 받는다.

■ **Give Up** : 포기할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라. 이제껏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세상만사와 부부 자식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기적처럼 변하겠는가. 되지도 않을 일로 속을 끓이느니 차라리 포기하는 편이 낫다.

오 부국장은 여기에 곁들여 “1, 10, 100, 1000, 10000의 법칙”을 제안한다. 하루 한 가지씩 좋은 일을 하고, 하루 10사람을 만나고, 하루 100자를 쓰고, 하루 1,000자를 읽으며, 하루 1만 보씩 걷는다는 것이다. 이보다 더 훌륭한 노년이 있을까.

“노년의 서글픔은 늙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늙었다는 것을 애써 부인하려는 데 있다.”

- 오스카 와일드(1854-1900) : 아일랜드의 소설가